

漢藥材 應用에 對한 臨床手記



韓 璣 植

한일가축병원

緒 論

한약재의 성분, 약리, 용량, 효과 등을 명기한 것이 日本藥局方 제5내지 제7 개정판인데 그중에 한약재가 약150여 종류가 수록되어 대략 예를 들면 樟腦油 蓖麻油 橄欖油 등과 여타의 합제 또는 丁機의 종류로서 若味 蘆薈 阿片 甘草等 여러가지인데 한약을 처방하여 조제하는데는 감초가 대부분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應 用



甘草

1. 甘草(학명 : Glycyrrhiza

glabra)는 콩과 식물로서 남부 구라과가 원산지로서 다년생의 초본이며 잎은 羽狀複葉으로 다수의 소엽으로 형성하고 초여름에 작은 잎 겨드랑 사이에서 꽃대가 생겨나와 담황색의 나비모양의 꽃이 핀다. 走根을 채취하여 약으로 쓰는데 우리나라에도 재배종이 있으나 약질이 좋지 못하여 각광을 받지 못하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좋으며 성분은 甘味質인 Glycyrrhizin이 함유되어 있고 약리는 달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모든 약을 잘 조화하여서 병변 부위에 諸藥을 잘 유도하는 성질을 지니면서 해독작용을 잘 한다. 가축약에 작용하는 상태를 살펴 보면 특히 소화기관이 많은 반추동물의 하리증에 대하여 지사제와 같이 감초를 1대1로 첨가하여 경구로 투여하게 되면 식도구를 잘 개도하는 역할을 하여서 제4위에 약이 빨리 도달하게 되어 약의 消耗와 中斷을 방지하게 된다.

2. 농약의 중독에는 감초 및黑豆를 소를 표준하여 각150g씩 煎湯하여 먹이게 되면 한첩에 완치를 볼 수 있다. 黑豆는

까만콩인데 시장에서 팔고 있고 이 처방은 甘豆湯이라 하는데 약물 중독의 해독에는 효과가 좋다는 세평을 받고 있다.

3. 양돈업자들이 자돈의 白痢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자돈이 白痢이환중에는 전신쇠약은 물론 실질과 점막이 손상되어 약효를 잘 발휘 할 수 없다.

이때 투약을 하여도 한강투석으로 될수 밖에 없건만 양돈업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이 약이나 저 약이나 지어다 먹이지만 효과가 없는채 자돈이 다 폐사하게되면 수의사에게 대한 원망만 늘어놓는 형편이다. 여기서 Sulfamine 제와 灸甘을 대등하게 첨가시켜 (180cc) 물에 타서 먹이고, 찬물만 안 먹이면 효과가 빠르다.

4. 灸甘의 제조방법

灸甘은 불에 볶은 감초다. 덩쿨 감초를 0.5cm 가량 절편 건조하여 질그릇 솥에 黃黑斑點이 생기도록 볶은 것이다.

5. 난산의 처치에 만출력을 촉진시키는 한약은 續隨子 4g와 감초 35g를 煎服 시키면 별로 고통없이 진통작용을 隨伴하게 된다.



結隨子

續隨子(학명: *Euphorbia Lathyris*)는 大戟科에 속한 식물로서 구주가 원산인데 초년생의 초목으로 과실은 藤果로서 평활하고 관상 및 약용식물의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도 재배하고 있다. 성분은 aesculetin *Euphorbou*등을 함유하고 있고, 藥理는 瀉下 및 分娩催起와 消積의 효과가 있다. 法製방법은 藤果를 약용에 쓴다.

6. 축우가 産前産後에 자궁 출혈이 尤甚할때 地榆 30g와 감초 30g를 전탕하여 경구로 투여 시키는데 1일2첩 경과에 따라 1내지 3일간에 계속 먹인다.



地榆

地榆(학명 *Sanguisorba officinalis*)는 장미과에 속한 식물로

서 산야에 자생하고 다년생의 초목으로 莖高가 1m에 이르고 잎은 靑數羽狀의 초엽으로 橢圓形인데 일가에는 鋸齒가 있고 초가을 가지위에 암홍색의 꽃이 피며 가을 봄에 뿌리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쌀뜨물에 24시간동안 浸漬한뒤에 말려서 절제하여 약에 쓴다.

성분은 불명이고 약리는 지혈 및 수렴제로서 자궁 및 항문의 출혈에 지혈작용이 顯著한 약초이다. 또 자궁 및 태아에 정頓작용을 잘하여 애후가 좋다.

7. 산후정체에 태막의 자연박리가 불가능하여 인력만출이 필요 할때에 온탕(42°C) 4ℓ 에 감초말과 중조 각 30g씩 녹여서 자궁내에 권주 하게되면 자궁의 수축이 촉진되어 태반의 분리가 용이하고, 태막태반을 인출하는데 초작이 빨라 질 뿐 아니라 감초의 덕분에 병발증도 없어진다.

8. 만성위장염으로 식욕부진에 菁蒿 및 감초를 3대1로 체중에 따라 분량을 가감하는데 표준으로는 축우(큰소)가 菁蒿30g와 감초10g를 전탕하여 경구로 투여한다. 만약에 하리가 병발해 있을때는 고삼 20g를 첨가하고 또는 영양이 衰弱한 가축에는 四物에 併湯하여 먹인다.

9. 菁蒿는(학명 *artemisia apiacea*)는 영거시과(菊科) 속한 식물로서 하안 및 해변에 자생하고 다년생으로 宿根性의 초목이다. 봄에 처음나는 잎은 땅에 붙어 자라고 당근 무우일과 유사하고 늦은 봄에 잎사귀 사이에서 꽃대가 나와서 황록



菁蒿

색을 띤 꽃이 피며 잎사귀의 겨드랑에서 작은가지가 나와 小頭狀 花序를 이룬다. 가을 초봄에 뿌리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서 쌀뜨물에 24시간동안 침지한뒤에 약간의 소금을 녹여 질그릇 솔에 볶아서 약에 쓴다. 菁蒿의 주성분은 Cineol이며 약리는 수렴 및 지사 지혈제다.

10. 유우나 포유하고있는 牝畜에 비유량이 부족할때 王不留行 100g과 감초 10g를 사물에 합제하여 煎湯함과 동시에 경구로 투여시키면 유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王不留行(학명은 *Saponaria Vaccaria*)은 도관초 라고도

하고 속명에는 당고새 라고 한다. 나도게미자리과(石竹科)이 속한 식물로서 원산지가 歐州라고하나 잘못된 해석이고, 신기습 반 양지 된곳에 약간의 비옥한 두덕위에 자라며 1년생의 초목으로 잎끝이 뾰족하여 잎이 서로 마주나서 基脚莖을 포화하여 주고 있다. 5월내지 6월경에 梢上에서 분가되어 꽃대가 나와서 담홍색을 띤 5辨花가 取纖花序로서 배열하고, 하지 전후에 莖葉의 전체를 채취 한것은 淋疾및 乳癰藥으로 쓰고, 초가을에 잎 또는 종자를 채취한 것은 비유축진의 약재로 쓴다. 성분은 불명이고, 약리는 이뇨 및 消炎劑다. 용량은 증가축에는 24g 씩 써보았다. 이 약재는 한약방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으나 우리 임상수의사들은 낙농업자들을 위하여 권장할 만한 약재인데 가축용으로 법제방법은 채취 즉시 그늘에 말려서 간장물에 24시간동안 침지 하였다가 질그릇 솥에 약간 볶아서 사용한다.

11. 만성하리증에 수척한 독우 治療

方法

농촌에서 송아지의 사양관리 부실로 만성하리증이 빈발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외모의 증상으로는 머리 부분이 몸집에 비교하여 보통소의 머리 보다 길고 크며 엉덩이는 꼬리와 함께 뒤로 튀어나와 있고 피부는 수척하여 거칠고, 후구 전체에 배변된것이 문어서 색깔이 변할 정도로 되어있고, 눈은 반만 떠서 보행을 제대로

못한다.

그 이유를 축주에게 물으니 여러 가축병원에서 여러번 약을 지어다 먹었는데 조금씩 효과가 있다가 再發을 하였다고 대답한다. 만약에 이런 송아지가 폐사하게 되면 점안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연령이 부족하다고 거절하면 네 가축병원에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돌아서는 축주들이 있다. 이들에게 축산발전을 위하여는 입장에서 죽기전에 치료를 하도록 권장해 본 예를들어 본다.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2주일은 치료하여야 될것이고 또 환축이 내원 하지 못하고, 매일과 같이 왕진하여야 되는데 경제동물의 이해타산도 해보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약을 쓰게 된다. 이때 처방으로는 인삼, 오미자, 熟地黄, 赤芍藥, 川芎, 當歸 각 4g 씩 감초 2g 를 1일량으로 하여 10일간의 약은 전탕하여 1일 3회씩 경구로 투여하라고 지시하였더니 결과적으로 경과가 진전이 많이 되었다.

위에 말한 四物이라는 것은 한방에는 六味 및 八物과 四物이 처방에 기초가 되는데 六味는 숙지황, 山藥, 山茱萸, 白茯苓, 牡丹皮, 澤瀉 이상의 六種이고, 팔물은 인삼, 백목, 白茯苓, 甘草, 熟地黄, 赤芍藥, 川芎, 當歸 이상의 팔물인데 여기에다가 黃芪 肉桂를 첨가하면 十全六補湯이 되고, 위에 기술한 팔물중에 후자의 4종이 사물인데 이것은 자양강장약이다. 여기다간 두통에 쓰는 약재를 1내지 2종을 첨가하

면 두통이 해소되고 전위 및 소화약제를 1내지 2종을 가미하게 되면 위장약이 되고 해열제도 역시 똑같은 의미가 된다.

앞으로 우리 임상수의사들도 한약을 연구개발하여 사용하면 더욱 수의진료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임상적 견지에서 모든 처방의 기초가되는 사물을 본초 성분 약리, 용량 효용 및 응용 등을 기술코저 한다.

12. 숙지황은 생지황을 물위에 띄워서 물위에 뜨는것은 천황이라 하고 반쯤 뜨는것은 人黃이라 부르고 물에 아주 잠기는 것은 지황이라 하는데 이지황으로 질그릇 솥에 저서 그늘에 말려서 찹쌀 술을 뿜어 아홉번 되풀이(九蒸九晒) 한것이 숙지황이라고 한다. 약효는 보혈 및 益精 解熱이되고, 감미가 있어 가축이 잘 먹게 된다.



地黃

지황(학명 *Rehmannia glutinosa*)은 玄蓼科에 속한 식물로서 중국이 원산지이나 우리나라 황주에 분포되어 전국적

으로 재배하고 있다. 다년생의 초목으로 莖高가 25cm 가량 크고 잎은 장타원형으로 잎가에 톱니가 있고 짧은 잎줄기로 호생하며 여름에 작은잎의 겨드랑에서 나팔모양의 筒部가 생겨서 先端五裂의 홍자색을 띤 合瓣花가 피고, 晩秋에 뿌리를 채취하여 약용에 쓰는데 생지황은 influenza 및 감위에 많이 쓰이고 건지황은 실질장기에 열이 있을때 해열작용이 잘 되고 또 내장출혈에 지혈이 되는 약재로서 술자가 경험한 바로는 산지에 따라 약효의 차이가 다르다는것이 증명 되는데 황토 땅에서 생산된것은 불량품은 별로 없다. 건지황은 생지황을 절편하여 그늘에 말려서 酒浸 24시간 후에 질그릇술에 볶아서 약용으로 쓴다. (酒浸에서의 술은 찹쌀 술을 말한다.)



芍藥

13. 芍藥〔(합박꽃뿌리) 학명 : *Patonia albiflora*〕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다가 芍藥科로 분리 되었다. 동북 아세아지방의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山芍藥이 강원도에 분포되어 있어

서 이를 江芍藥이라고 한다. 개량종을 관상용으로 정원에 많이 재배하며 宿根性의 초본으로 莖高가 1m 가량 크고 뿌리는 비후하며 잎은 卵形 또는 披針形을 이루어서 초하에 대형의 홍색 또는 백색의 꽃이 핀다. 늦가을에 뿌리를 채취하여 약용에 쓰는데 대갈로 껍질을 벗겨보면 백색이 나오는 것은 白芍藥이 되고 적색이 나오는 것은 赤芍藥이라 한다. 전자는 茯苓 및 止痢 補虛 등에 쓰이고 후자는 破血 및 產褥과 保血 등에 가미한다. 법제방법은 竹刀로 刮皮하여 蜜蒸 또는 술을 약에 뿌어서 질그릇술에 볶아서 약용에 쓴다. 酒炒는 溫作用을 한다고 한다. 성분은 안식향산이 함유되었고 약리는 鎮痛, 鎮痙, 通經, 止瀉의 작용을 한다. 용량은 4g 씩 쓴다.



川芎

14. 川芎(학명 : *Cnidium officinale*)은 미나리아재비과(繖形科)에 속한 식물로서 중국이 원산지이고 각지의 전포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잎은 羽狀複葉으로 가을에 백색의 꽃이 피고 전체에 특이한 약성의 향기가

나는것이 특징이다. 성분은 莽香酸과 휘발유 및 수지가 포함되어 있고, 약리는 鎮痙 驅風 通經의 작용을 한다. 인삼과 합제하면 머리와 눈에 해열이 잘 된다. 용량은 8g 씩 쓰고 가축약에 이 川芎을 첨가하게 되면 약효가 빠르게 난다.



當歸

15. 當歸(학명은 *Ligusticum autilobom*)은 미나리아재비과(繖形科)에 속한 식물로서 산지에 자생하는데 전체에 털이 있고 뿌리는 비후하며 乳汁를 함유하고 있어 향기가 강하게 풍긴다. 줄기는 곧게 서 있으며 높이는 1m 이상으로 키가 크다. 잎은 1내지 2회 삼출하여 있고 작은잎은 3내지 5로 中裂되어 있으며 裂片은 長橢圓形으로 끝이 날카롭다. 또는 鋸齒가 있고, 藥翰은 넓고 크며 紫色을 띤다. 꽃은 자색으로 複狀花序로 핀다. 재배품종으로 왜당귀란 것이 있는데 잎자루 전체가 자색을 띠고 키가 참당귀보다 작으며 꽃이 백색이다. 또 오가과에 속한 상당귀(새발 당귀라고도 하는데 智

異山에 자생하고 있다)가 있는데 山獸들이 종에 맞거나 疝痛氣가 일어나면 잎을 뜯어서 먹는다고 한다. 성분은 방향성유를 다량 함유하여 있고 약리는 강장보혈제로서 유명하다. 법제방법은 酒洗 또는 酒浸 漬과 동시에 薑汁에 볶기도 한다. 용량은 8g 씩이고 가축약용에 응용하는 당귀법제는 酒浸 漬 24시간 동안이다.

16. 위의 한약재를 근간에 응용 실험한 것은 1981년 8월 25일 경상남도 의령군내 축주 김모씨 산후 1주일된 돼지 (200K 정도) 자돈 6두에 였다. 증상은 전율이 있고 체온이 41℃를 기록하고 호흡이 약간 촉박하며 권태기가 있고 臍部가 저유하고 식욕이 절제되어 있고, 후구가 약간 마비되어 있고, 치료의 경력은 1주일 동안에 4차 치료 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한다.

축주가 한방으로 치료했으면 하기에 요청 하였다고 말을 함. 특기 할것은 세진의 결과는 내열은 있으면서 결막이 이상없고, 안구가 창백하고 체표의 온도가 부정하여 냉기가 감들며 皮毛가 거칠고 자돈들이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반드시 過藥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모돈을 보정하고 該當穴位에 施針을한 뒤에 한약의 처방으로서는 숙지황, 적작약, 천궁, 당귀, 각 4g 씩과 황저, 견지황 각 8g 방풍 감초 각 6g 씩, 1첩을 전탕하여 3회로 나누어 경구로 투여하라고 지시하였더니 그 뒤 3일만에 완치하였다. 황저와 방풍은 왜 첨가하였느냐 하

면 황저는 건위강장 및 制汗劑로서 諸瘡를 치유시키고 살균력이 있고 방풍은 해열 및 진통약으로 黃芳得防風則 其切而愈大라 하였다. (注: 황저와 防風을 같이 쓰게되면 그 병을 치유시키는데 절대적 효과가 있다.

결 론

요즈음 자연보호 운동이 전개되어 공해를 최대한 방지해 보자는 것이 상식화 되어있다. 의류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하고 식품도 똑 같은 문제다. 人習가 발달된 오늘날에 자연속에 존재하고 있는 공해없는 약품을 개발해 내어야 한다.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는 것이지 부작용과 병발증에 시달리는 합성의약품을 될 수 있는 한 억제하고 자연약품인 한약재를 널리써서 환원문화를 가속화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농업통제에 있어서 한우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의약품의 공해로 인하여 蕃殖의 과정에서 불임우로 변하는 牝牛가 지방실정에 따라 다르지마는 20%는 차지하고 있다. 현재 가축인공수정을 가축병원도 아닌 축협에서 대다수 실시하고 있으나 불임우를 유발시키는 원인은 막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가축이라 할지라도 마구 정액만 주입 시킨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수의사가 그 가축의 체질과 번식을 조해하는 원인을 구명하고 수정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미국을 위시하여 선진제국에서 인공수정을 별도로 전문대학 2년을 졸업한 인공수정종사원이

법제화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최소한의 공해도 막지 못하면서 사람이 생리적으로 제도를 설정하여 말을 못하는 동물에게 번식의 장애를 유발 시킨다는 것은 인류의 도리에 위배가 된다.

농약도 식물농약을 연구 개발 하는것이 공해방지에 한가지 대책이 된다. 무기성의 농약을 마구 뿌려 병충해되는 해충의 천적을 殺戮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를 묻고싶다. 천적인 파충류도 한약재가 된다. 항생물질과 합성약품을 남용하여 동물체내에 중독을 방지하고 중화의 목적으로 한약재를 쓰는것은 동물체의 보충방법이다. 우리 나라에도 선진국의 대열에서는 위치인데 기술적의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천연자원인 한약재가 육백여 종류나 있다고하니 수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연구자료비를 보조하여 가축에 쓰이는 한약재를 개발하도록 위정당국에서 계획하는 것이 앞을 내다보는 유축농업의 중농정책에 적절한 방안이라고 믿어진다.

참 고

한약재료 구입의 방도를 소개하면은 중도시 이상의 한약도매상을 찾아서 구입하게되면 염가로 하여준다. 作末(粉末)을 할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며 행사에게는 속기 쉬우니 여기서 부연해둔다.

《參考文獻》 漢方醫藥處方全書 方藥合編, 藥草本經, 全植物圖鑑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368번지 전화 중교21번.